

2013 3.03 사순 제 3 주일

제 1 독서 : 탈출기 3,1-8 ㄱ, 13-15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 >

제 2 독서 : 코린토 1 서 10, 1-6. 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

복 음 : 루카 13,1-9 <너희도 회개하지않으면 모두 멸망할것이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제 1 독서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자상하심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정으로 탄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때에, 하느님께서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한가운데 솟아오르는 불꽃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상식에서는 모든 동력은 사용하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으시면서도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들이 저에게 제가 만난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느님께서서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이름을 밝혀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원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이름은 신앙의 선조이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은 전화번호와 같이 우리가 원할때에 하느님과 연결할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이 너무 성스러워 감히 사람의 혀로 부르지를 았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사람들이 변을 당한 일에 대하여 두가지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벌은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을때에 하느님으로 부터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져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는 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밭주인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삼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베어 버리라고 포도지배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지배인은 **“주인님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하며 애원을 합니다.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즉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또다시 하느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 회개하지않고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다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사실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40 여년이 흐르는 동안 이집트를 출발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태어난 그들의 2 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광야로 견주어 보며**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인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회개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의식조차 못하면서 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알고 거기에서 나오려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죄의 구렁 속에서 빠져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 분께 돌아가려는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단죄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때에** 하느님의마음에드는 사람이 될것입니다. 회개는 죄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분께로 돌아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를 받아주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느끼고 믿는것** 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다시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마라.”** 하느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일상 생활이 될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1-8 ㄱㄷ.13-15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시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0,1-6.10-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3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9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